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 pp. 358-365,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35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초등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정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ir Daily Life and Daily Interactions with Children at Hom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elf-Efficacy

Sooj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종단자료 중 9차(2016)년도 자료 중 총 1442명(남자 739명, 여자 70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양육효능감은 정적으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와 가정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support mother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in stressful modern families, we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of a total number of 1442 (739 men and 703 women) participants of the 9th (2016) Korean Children's Panel Study. We found that daily at-home mother-child interaction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the routine perceived stress of mothers and the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Stress negatively affected the daily interactions of mothers with children, whereas parenting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se interactions. In addition, parenting self-efficacy controlled the negative influence of mother stress on the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at h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the support of mothers who feel stressed in their daily lives for the improvement in their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at home.

Keywords : Mothers, Stress, Daily Interaction with Children at Home, Control Effect, Parenting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Soojung Kim(Hannam Univ.)
email: soojungkim@hnu.kr
Received November 7, 2022 Revised December 13,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초등 저학년 시기 아동은 여전히 부모와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에 기반한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 (daily interaction)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1].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책을 함께 읽고, 혼자 놀 수 있는 나이지만 함께 놀이를 하고, 자녀와 함께 집안일을 공유하는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로 하여금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2]. 뿐만 아니라, 아동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발달[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출현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4]. 이러한 부모와의 가정 내 상호작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입학과 동시에 상당수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숙제를 한다거나, 아예 학원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밤늦게 귀가하거나, 귀가 후에는 주로 핸드폰 게임 등을 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현대의 가정에서 자녀는 초등이후 부모님과 가정에서 함께 살가운 대화 및 놀이하기를 경험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5].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핵가족화, 늘어나는 맞벌이부모 가정에서의 육아현실을 고려할 때에 초등 저학년 아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논할 때에, 아버지 및 어머니 모두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특히 초등 저학년의 아동에게 어머니와의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발달은 물론[7], 아동의 교육기관 적응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오는 현실이지만,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어머니와 자녀의 가정 내 상호작용, 즉,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토대로 한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이를 예측하는 다양한 맥락적 및 심리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가정에서의 공동활동 (joint activities)를 살펴본 Galboda-Liyanage, Prince, 그리고 Scott (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자녀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의 빈도수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적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9].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하는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퍼즐게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함께 읽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10], 인지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11].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주목하였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데 핵심기제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12], 어머니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13].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양육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양육을 수행할 의지와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13].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동일한 양육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훈육과 체벌의 사용으로 이어지기 쉽다[2]. 선행연구들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자녀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14].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년간 사회적 단절 및 돌봄부담의 가중 등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오고 있으며 [15], 세계적인 경기불안정 등은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 내 스트레스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다[16].

결국, 어머니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정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며, 이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영유아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부적으로, 체벌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7].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가중된 양육환경에 놓인 현대사회의 어머니들에게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으로서 양육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이는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 양육효능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갖고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한다[18].

양육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의 창시자인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양육이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정의한 것으로서, “부모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19]. 인간의 행동을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차원이 아닌,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내부작용에 관심을 갖고 생성되었던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하고있기에, 양육효능감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의 역할을 한다. 즉,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위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기능한다[20].

양육효능감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한 많은 부모교육학자들은 양육효능감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21]. 국내에서도 정미현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2]. 그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놓인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23], 자폐성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24].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연구 외에 양육효능감이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15].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살펴본 Oppermann, Cohen, Wolf, Burghardt 그리고 Aders (202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완충 역할을 하는 요소, 즉, 부모의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함을 밝힌 바 있다[25]. 그러나, Hastings와 Brown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기능을 탐색한 바 있는데, 아버지 그룹과 달리 어머니 그룹에서는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26].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Kwan, Kwok, 그리고 Ling (2015)의 연구에서 역시, 아버지 그룹에서는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된 반면, 어머니에게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인해서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와 가정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혹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초등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가정 내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에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 어머니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힌다면, 가정 내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안 외에,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 방안이[22] 동시에 고려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가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정도와 상관이 있는가?
2. 어머니가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정도 간의 관계는 양육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종단자료 중 9차(201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9차년도는 연구대상 아동이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해에 수집된 자료에 해당하며, 연구대상 아동은 총 1442명으로, 남자 739명, 여자 703명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8.77세 (SD=3.64)였다. 연구대상 어머니 중 43.1%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8.8%가 초대졸의 학력을 보고하였으며, 연구대상 어머니 중 27.7%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있다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Child's Gender	Male	739(51.3)
	Female	703(48.8)
Mother's Age	38.77±3.64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1)
	Middle School	5(.4)
	High School	398(27.7)
	Junior College	414(28.8)
	Bachelor's Degree	535(37.2)
	Graduate School	84(5.9)
All		1442(100)

2.2 연구도구

2.2.1 자녀와의 상호작용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이 사용되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자녀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요리, 청소, 상 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에 대하여 어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혀 해당 상호작용을 하지않은 경우 1점을, 1~2번 한 경우 2점, 3~6번 한 경우 3점, 그리고 매일 하였다면 4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와 다양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은 .82로 매우 높았다.

2.2.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효능감은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으로 측정하였다. PSOC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28]와 오미연(2005)[29]에 의해 번안 및 수정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연구진에 의해 최종 수정되었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즉, 부모유능감, 부모불안감, 그리고 기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은 .88로 매우 높았다.

2.2.3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응답자 어머니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라는 질문에 4점척도(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1점〉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어머니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빈도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r=-.13, p<.001),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r=.26, p<.001) 나타냈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Variable	1	2	3
Mother's Perceived Stress	1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02	1	
Daily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13***	.26***	1
M	2.98	3.23	2.09
SD	.65	.22	.47

***p<.001

3.2 어머니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요약하였다. 먼저,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와의 가정 내 상호작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9, p<.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역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56, p<.001).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생성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 역시 가정 내 자녀와 어머니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19, p=.01), 상호작용 변수로 인한 R^2값의 변화량은 .0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다시 말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정도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는 Fig. 1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겠다. Fig. 1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를 중심으로 평균값(M)과 ±1 표준편차(±1SD)에 따라 연구대상 어머니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 기울기가 그룹별로 차이가 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 낮은 그룹의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높았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빈도수도 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아지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정도가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Variable	B	SE	t	p	LLCI*	ULCI**
(Constant number)	2.09	.01	177.48	<.001	2.06	2.11
Mother's perceived stress (A)	-.09	.02	-4.90	<.001	-.12	-.05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B)	.56	.05	10.42	<.001	.46	.67
A × B	-.19	.08	-2.49	<.01	-.34	-.04
Increasing R^2 with Interaction	R^2		F		p	
	.004		6.19		.01	

*LLCI: Low Level of B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of B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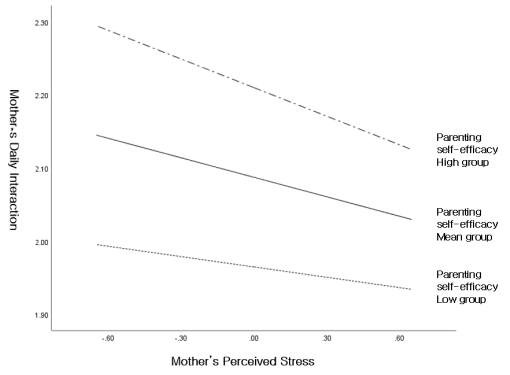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의 9차년도(2016) 조사자료 중 총 144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초등 2학년 자녀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2.09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공유하는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이 지난 일주일간 1-2회 정도라고 보고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 대로, 초등 저학년 아동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회상에 근거하여 자료가 수집된 바, 기억의 왜곡 등과 같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일주일 간 귀가 후 가정에서 초등생 자녀와 어머니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이 Daily diary등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30].

둘째, 초등 2학년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놀잇감을 이용하여 함께 놀이하고, 집안일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자녀와 함께하는 데 어머니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적으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부모행동에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적인 영향을, 효능감과 같은 정서적인 자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12-14,17].

셋째,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수행 간의 부적인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심리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5].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에게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와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이 컸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만을 낮추는것으로 어머니-자녀 간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육효능감을 높게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였을 때에야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것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행을 할 의지를 갖지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중재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5].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경험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난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특히, 자녀양육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모라는 존재는 외부환경이 제공하는 스트레스에 무기력하게 영향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서는 안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뒷받침한다. 이는 Bandura가 사회-인지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과 일맥상통한다[20].

단독문항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한 점, 그리고, 어머니-자녀 간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해당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스트레스 구성개념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현상 가운데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 어머니들에게 부모효능감이라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육열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현상 가운데에서 사교육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J. Magill-Evans, M. J. Harrison, "Parent-child interaction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outcomes at 4 years", *Children's Health Care*, Vol.30, No.2, pp.135-150, Jun. 2010.
DOI: https://doi.org/10.1207/S15326888CHC3002_4

[2] M. S. Kim, H. J. Mo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3, No.8, pp.25-35, Jan. 2005.

[3] M. Wulbert, S. Inglis, E. Kriegsmann, B. Mills, "Language delay and associated mother-child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1, No.1, pp.61-70, Jan, 1975.
DOI: https://doi.org/10.1037/h0076125

[4] J. E. Dumas, P. J. LaFreniere,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normativ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Vol.64, pp. 1732-1754, Dec, 1993.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3.tb04210.x

[5] B. D. McLeod, J. R. Weisz, J. J. Wood,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7, No.8, pp.986-1003, Mar, 2007.
DOI: https://doi.org/10.1016/j.cpr.2007.03.001

[6] W. J. Doherty, E. F. Kouneski, M. F. Erickson,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0, No.2, pp.277-292, May, 1998.
DOI: https://doi.org/10.2307/353848

[7] J. Na, B. Lee, K. Kim, "The Effects of Mother Efficacy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Adaptation to Education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fant Care,* Vol.96, pp.237-258, March, 2016.

[8] E. Lee, "The effects of a program utilizing filial play therapy to improve mother-child interaction and decreas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10, No.1, pp.49-66, Oct, 2006.

[9] K. C. Galboda-Liyanage, M. J. Prince, S. Scott, "Mother–child joint activity and behaviou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4, No.7, pp.1037-1048, Oct, 2003.
DOI: https://doi.org/10.1111/1469-7610.00188

[10] F. E. Gardner, "The quality of joint activity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behaviour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35, No.5, pp.935-948, July, 1994.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1994.tb02303.x

[11] Y. Tachibana, A. Fukushima, H. Saito, S. Yoneyama, K. Ushida, S. Yoneyama, R. Kawashima, "A new mother-child play activity program to decrease parenting stress and improve child cognitive abilities: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LoS ONE,* Vol.7, No.7, pp.e38238, July, 2012.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38238

[12] J. Belsky, M. Rovine,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An empirical rapprochement", *Child Development*, Vol.58, No.3, pp.787-795, Jun, 1987.
DOI: https://doi.org/10.2307/1130215

[13] S. Hong, "The influence of parental child care activities on parent-child inter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Journal of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25, No.4, pp.55-78, Aug, 2020.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5-4-03

[14] C. Y. Huang, J. Costeines, J. S. Kaufman, C. Ayala,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for ethnic minority adolescent mothers: Impact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3, No.2, pp.255-262, Feb, 2014.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3-9807-1

[15] T. L. Jones, R. J. Prinz,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5, No.3, pp.341-363, May. 2005.
DOI: https://doi.org/10.1016/j.cpr.2004.12.004

[16] Q. Wu, Y. Xu, "Parenting stress and risk of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amily stress theory-informed perspective", *Developmental Child Welfare*, Vol.2, No.3, pp. 180-196, Oct. 2020.
DOI: https://doi.org/10.1177/2516103220967937

[17] H. Cheon, Y. Kim, "Effects of Maternal Anxiety,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Infant and Child Mental Health Research, Vol.5, No.1, pp.21-49, Jan. 2012.

[18] M. Kim, H. Mo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Society, Vol.43, No.8, pp.25-35, Aug, 2005.

[19] P. K. Coleman, K.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18, No.1, pp.47-85, Mar. 1998.
DOI: https://doi.org/10.1006/drev.1997.0448

[20] A.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37, No.2, pp. 122-130, Feb. 1982.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22

[21] M. R. Sanders, T. G. Mazzucchelli, L. J. Studman, "Stepping Stones Triple P: The theoretical basis and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ositive parenting program for families with a child who has a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Vol.29, No.3, pp.265-283, Jul. 2009.
DOI: https://doi.org/10.1080/13668250412331285127

[22] M. H. Jung, "A study on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 - A base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7, No.1, pp.45-58, Mar. 2010.

[23] M. Song, H. Shin, E. Lee,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Foreign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a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Vol.10, No.3, pp.1627-1643, Sep. 2009.

[24] S. Han, S. Park, "A Pilot Study of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Maternal Parenting-Efficacy of Mothers with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tic Disorder Research,* Vol.15, No.1, pp.87-120, Jan. 2015.

[25] E. Oppermann, F. Cohen, K. Wolf, L. Burghardt, Y. Anders, "Changes in parents' home learning activities with their children during the COVID-19 lockdown-The role of parental stress, parent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Frontiers in Psychology*, Vol.12, pp.682540, July, 2021.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1.682540

[26] R. P. Hastings, T. Brown,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autism, parent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107, No.3, pp.222-232, May, 2002. DOI: https://doi.org/10.1352/0895-8017(2002)107〈0222:BPOCWA〉2.0.CO;2

[27] R. W. Kwan, S. Y. Kwok, C. C. Ling, "The moderating role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arenting alliance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12, pp.3506-3515, Dec.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5-0152-4

[28] S. J. Shin, M. J. Jung,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9, No.1, pp.27-42, Jan. 1988.

[29] Y. H. Yee, M. Y. O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9, No.3, pp.47-62, Sep. 2006.

[30] A. Schmidt, A. C. Kramer, A. Brose, F. Schmiedek, A. B. Neubauer, "Distance learning,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ffective well-being of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daily diary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7, No.10, pp.1719-1738, Oct. 2021.
DOI: https://doi.org/10.1037/dev0001232

김 수 정(Soojung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문학석사)
- 2015년 12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육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복지, 부모교육